

원저

五行鍼을 응용한 六氣鍼에 관한 연구

김재홍 · 조명래

동신대학교 침구학교실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Sa-Am's Ohaeng-acupuncture and Liuqi-acupuncture

Kim Jae-hong and Cho Myung-rae

Department of Acupuncture & moxibustion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Shin University

Objectiv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Sa-Am's Ohaeng-acupuncture(舍巖五行鍼法) with Liuqi-acupuncture(六氣鍼法)-the transforms of Sa-Am's Ohaeng-acupuncture .

Methods : Zheng Ge(正格), Sheng Ge(勝格), Han Ge(寒格), Re Ge(熱格) of Sa-Am's Ohaeng-acupuncture compared with Liuqi-acupuncture-therapy for invigoration and purgation of five zang-fu's wind, heat, dampness, dryness and cold(風熱濕燥寒).

Results : 1. Liuqi-acupuncture used five-su points(五俞穴) and Zi-Ta Jing Bu Xie(自他經補瀉).
2. Liuqi-acupuncture is reinforced or reduced itself-point of itself-meridian(自經自穴) in therapy for invigoration and purgation.
3. Liuqi-acupuncture is therapy for invigoration and purgation of five zang-fu's wind, heat, dampness, dryness and cold(風熱濕燥寒).
4. Zheng Ge is similar to Bu-fa, Sheng Ge is similar to Xie-fa in Qu-xue of Ta-jing. The Qu-xue of interrestraining relations is the same, but that of interdependent relation is the difference in Qu-xue of Zi-jing.
5. Han Ge and Re Ge is similar to Re Bu Xie fa in Qu-xue of Zi-jing but is different to in Ta-zing. For example, Han Ge is Shaofu(Bu), Yingu(Xie) but Re Ge is Shaofu(Xie), Yingu(Bu).

· 접수 : 2003년 1월 2일 · 수정 : 2003년 1월 15일 · 채택 : 2003년 1월 18일
· 교신저자 : 조명래,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동신대 부속 한방병원 침구2과
Tel. 062-350-7211 E-mail : mrcho63@hanmail.net

Key words : Liuqi-acupuncture, Sa-Am's Ohaeng-acupuncture

I. 서론

침구요법은 음양오행설, 경락학설, 장상학설 등 동양의학의 기초이론을 근거로 하여 체표상의 일정한 부위에 각종 침구와 조작방법을 운용하여 물리적 자극을 주어 생체에 반응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질병을 예방, 완화, 치료하는 동양의학 의료기술의 한 분야이다¹⁾.

오행침법은 오행에서 相生관계와 賊邪관계를 肘膝 관절 이하에 분포한 십이경의 오행속성과 결합할 때 선택되는 穴을 刺鍼하여 경락간 기혈의 허실과 성쇠를 조정하여 음양평형을 이루는 침법으로서¹⁾,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중기에 생존했던 사암도인이 음양오행의 상생·상극원리에 입각하여 장부의 허실에 따른 침구보사법을 상생관계 뿐만 아니라 상극관계까지 결합시키고, 여기에다 自經과 他經보사법을 결부시켜 사암오행침법을 창안하였다²⁾.

사암오행침법은 질병이 오행의 상생, 상극관계의 부조화에 의해 생긴다고 보고 ‘虛者補其母, 實者瀉其子’의 원칙에 다시 ‘抑其官, 補其讐’의 응용으로 부조화를 조정하는 침법으로, 自經에서 二穴, 他經에서 二穴을 選穴한다. 허실보사법과 한열보사법으로 대별하는데, 補虛는 정격으로 瀉實은 승격으로 한열 보사는 한격, 열격으로 알려져 있다³⁾. 사암오행침은 취혈에 있어서 ‘虛者補其母, 實者瀉其子’의 원칙에 따라 自經에서 정격의 경우 自穴을 보하지 않고 母穴을 보하고 승격의 경우 自穴을 사하지 않고 子穴을 사하며 各經의 모든 병증을 하나의 기운의 보

사를 통해 치료한다.

오행침법의 변형인 육기침법은 五俞穴을 치료혈위로 하고 장부의 허실을 오행의 상생, 상극관계를 이용한 自他經보사를 통해 조정하는 침법으로 심포와 삼초를 제외한 경락은 風, 熱, 濕, 燥, 寒 五氣의 보사의 처방이 있다. 이에 저자는 오행침을 응용한 육기침법의 원리를 알아보고 사암오행침법과 육기침법을 비교 설명하고자 한다.

II. 본론

1. 사암오행침법^{1),3)}

1) 개요

사암오행침은 井, 榮, 腧, 經, 合에 속한 木, 火, 土, 金, 水의 오행혈에 소속된 경혈을 선택하여 장부의 허실에 따른 침구보사법을 상생관계 뿐만 아니라 상극관계까지 결합시키고 여기에다 自經보사 원칙에 他經보사법을 응용하여 발전된 침법으로 難經⁴⁾ 五十難의 五邪와 六十九難의 ‘虛則補其母, 實則瀉其子’에서 응용된 것이다.

正邪는 不中他邪이므로 自經病의 치법에, 虛邪는 母能令子虛이므로 虛則補其母의 치법에 實邪는 子能令母實이므로 實則瀉其子의 치법에 賊邪는 克實則令我虛(亢則害) 할 때는 虛則抑其官(承乃制)의 치법과 克虛則令我實일 때의 實則補其讐의 치법으로, 微邪는 亢則侮로서 虛則瀉其微邪의 치법으로 각각 응용되고 있다.

2) 처방내용

사암오행침은 '虛者補其母, 實者瀉其子'의 원칙에 다시 '抑其官, 補其讐'의 응용으로 시술하는 침법이며, 치료원칙은 허실보사법과 한열보사법으로 대별하는데, 補虛는 정격으로 瀉實은 승격으로 한열 보사는 한격, 열격으로 치료에 있어서 네가지 처방이 있다.

① 政格

정격은 정기가 허해진 상태를 보하는 처방이다. 상생관계를 이용한 '虛者補其母'의 방법으로 보하는 법이 있으며, 상극관계를 이용하여 상극쪽을 官이라 해서 '抑其官'의 방법으로 보하는 방법이 있다. 여기에 자경보사법과 타경보사법을 응용하여 4개의 穴이 도출된다. 그래서 정격은 허중 해당경인 장부의 母性經에서의 母性穴과 해당경의 母性穴을 보하고, 해당경의 賊邪가 되는 賊性經의 賊性穴과 해당경의 賊性穴을 사하는 방법으로 구성된다.

② 勝格

승격은 實한 사기를 제거하려는 처방이다. 상생관계를 이용한 '實則瀉其子'의 방법으로 사하는 법이 있으며, 상극관계를 이용하여 '補其讐'의 방법으로

사하는 방법이 있다. 여기에 자경보사법과 타경보사법을 응용하여 4개의 穴이 도출된다. 그래서 승격은 실중 해당경의 賊邪가 되는 賊性經의 賊性穴과 해당경의 賊性穴을 보하는 방법과, 해당경의 子經이 되는 子性經의 子性穴과 해당경의 子性穴을 사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③ 寒格

한격은 寒病을 치료하는 처방이다. '補其熱'하고 '瀉其寒'의 방법이 있으며, 여기에 自經과 他經을 응용하여 4개의 穴이 도출된다. 한중치료는 한중 해당경인 장부의 火性穴과 火經(心或小腸)의 火穴을 보하고, 自經의 水性穴과 水經(腎或膀胱)의 水性穴을 사한다.

④ 熱格

열격은 해열하는 처방이다. '補其寒'하고 '瀉其熱'의 방법이 있으며, 여기에 自經과 他經을 응용하여 4개의 穴이 도출된다. 열중치료는 열중 해당경의 水性穴과 水經(腎或膀胱)의 水性穴을 보하고, 自經 火性穴과 火經(心或小腸)의 火性穴을 사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虛實補瀉(正勝格)¹⁾

十二經	虛證의 경우, 正格(補)				實證의 경우, 勝格(瀉)			
	補		瀉		補		瀉	
肺	太白	太淵	少府	魚際	少府	魚際	陰谷	尺澤
大腸	三里	曲池	陽谷	陽谿	陽谷	陽谿	通谷	二間
胃	陽谷	解谿	臨泣	陷谷	臨泣	陷谷	商陽	厲兌
脾	少府	大都	大敦	隱白	大敦	隱白	經渠	商丘
心	大敦	少衝	陰谷	少海	陰谷	少海	太白	神門
小腸	臨泣	後谿	通谷	前谷	通谷	前谷	三里	小海
膀胱	商陽	至陰	三里	委中	三里	委中	臨泣	束骨
腎	經渠	復溜	太白	太谿	太白	太谿	大敦	湧泉
心包	大敦	中衝	陰谷	曲澤	陰谷	曲澤	太白	大陵
三焦	臨泣	中渚	通谷	液門	通谷	液門	三里	天井
膽	通谷	俠谿	商陽	竅陰	商陽	竅陰	陽谷	陽輔
肝	陰谷	曲泉	經渠	中封	經渠	中封	少府	行間

寒熱補瀉(寒熱格)²⁾

十二經	寒證의 경우				熱證의 경우			
	補		瀉		補		瀉	
肺	魚際	少府	尺澤	陰谷	尺澤	陰谷	魚際	少府
大腸	陽谿	陽谷	二間	通谷	二間	通谷	陽谿	陽谷
胃	解谿	陽谷	內庭	通谷	內庭	通谷	解谿	陽谷
脾	大都	少府	陰陵泉	陰谷	陰陵泉	陰谷	大都	少府
心	少府	然谷	少海	陰谷	少海	陰谷	少府	然谷
小腸	陽谷	崑崙	前谷	通谷	前谷	通谷	陽谷	崑崙
膀胱	崑崙	陽谷	通谷	小海	通谷	小海	崑崙	陽谷
腎	然谷	少府	陰谷	少海	陰谷	少海	然谷	少府
心包	勞宮	然谷	曲澤	陰谷	曲澤	陰谷	勞宮	然谷
三焦	支溝	崑崙	液門	通谷	液門	通谷	支溝	崑崙
膽	陽輔	陽谷	俠谿	通谷	俠谿	通谷	陽輔	陽谷
肝	行間	少府	曲澤	陰谷	曲澤	陰谷	行間	少府

2. 육기침법

1) 개요

육기침법은 사암오행침법과 같이 五俞穴을 치료혈위로 하고 장부의 허실을 오행의 상생, 상극관계를 이용한 自他經보사를 통해 조정한다. 허중에는 補方을 실증에는 瀉方을 사용하며 상생관계에 의해 2穴, 상극관계에서 2穴을 自經과 他經에서 選穴한다. 그러나 육기침법은 사암오행침법과 다른 두가지 점이 있다.

첫째, 상생관계에 의한 自經취혈시에 自經의 母穴을 보하거나 子穴을 사하지 않고 自經의 自穴을 보하거나 사한다. 반면에 상생관계의 經의 혈위는 상생관계의 혈을 취한다. 즉 간경의 경우 사암오행침법의 정격에서는 曲泉을 보하고 승격에서는 行間을 사하는데 비해 육기침법의 肝風補方에서는 大敦(목)을 보하고, 腎經의 陰谷(수)을 보하며 肝風瀉方에서는 大敦(목)을 사하고, 心經의 少府(화)를 사한다.

둘째, 사암오행침법은 三陰三陽과 六氣를 결합하여 각경락이 하나의 기운을 가지고 있으며 이 기운을 조정하여 장부의 허실을 조정하는데 비해 六氣鍼法

은 오장의 경락이 暑를 제외한 風, 熱, 濕, 燥, 寒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서 經絡五氣의 조정을 통해 장부의 병증을 치료한다. 즉 간경의 경우 사암오행침법은 風木氣의 허실에 따라 간의 병증이 나타난다고 보고 오행의 상생, 상극관계를 이용한 보사를 통해 風木氣의 허실을 조정하여 간의 병증을 치료하는데 비해 六氣鍼法에서는 간의 병증이 간의 風, 熱, 濕, 燥, 寒氣의 허실에 따라 나타난다고 보고 오행의 상생, 상극관계를 이용한 보사를 통해 간의 風, 熱, 濕, 燥, 寒氣의 허실을 조정하여 간의 병증을 치료한다.

2) 처방내용

사암오행침법은 정승격과 한열격의 네가지 처방으로 구성되는데 비해 六氣鍼法은 風, 熱, 濕, 燥, 寒의 補瀉方의 열가지 처방으로 구성된다.

각 처방은 네개의 혈위로 구성되며 經의 선택은 해당경의 오행의 상생, 상극관계에 의해 하며(臟은 臟으로 腑는 腑로 따른다), 經의 구체적인 혈위는 風(목), 熱(화), 濕(토), 燥(금), 寒(수)의 오행에 따른 상생, 상극에 따른다.

① 간(담)의 보사방

간(담)의 補方은 간(담)을 생해주는 신(방광)의 一穴, 간(담)을 극하는 폐(대장)의 一穴, 自經의 二穴을 취혈하고 瀉方은 간(담)이 생하는 심(소장)의 一穴, 간(담)을 극하는 폐(대장)의 一穴, 自經의 二穴을 취혈한다.

② 심(소장)의 보사방

심(소장)의 보방은 심(소장)을 생해주는 간(담)의 一穴, 심(소장)을 극하는 신(방광)의 一穴, 自經의 二穴을 취혈하고 사방은 심(소장)이 생하는 비(위)

의 一穴, 심(소장)을 극하는 신(방광)의 一穴, 自經의 二穴을 취혈한다.

③ 비(위)의 보사방

비(위)의 보방은 비(위)를 생해주는 심(소장)의 一穴, 비(위)를 극하는 간(담)의 一穴, 自經의 二穴을 취혈하고 사방은 비(위)가 생하는 폐(대장)의 一穴, 비(위)를 극하는 간(담)의 一穴, 自經의 二穴을 취혈한다.

④ 폐(대장)의 보사방

간의 보방

풍	열	습	조	한
간경의 목혈(보)	간경의 화혈(보)	간경의 토혈(보)	간경의 금혈(보)	간경의 수혈(보)
신경의 수혈(보)	신경의 목혈(보)	신경의 화혈(보)	신경의 토혈(보)	신경의 금혈(보)
폐경의 금혈(사)	폐경의 수혈(사)	폐경의 목혈(사)	폐경의 화혈(사)	폐경의 토혈(사)
간경의 금혈(사)	간경의 수혈(사)	간경의 목혈(사)	간경의 화혈(사)	간경의 토혈(사)

간의 사방

풍	열	습	조	한
간경의 목혈(사)	간경의 화혈(사)	간경의 토혈(사)	간경의 금혈(사)	간경의 수혈(사)
심경의 화혈(사)	심경의 토혈(사)	심경의 금혈(사)	심경의 수혈(사)	심경의 목혈(사)
폐경의 금혈(보)	폐경의 수혈(보)	폐경의 목혈(보)	폐경의 화혈(보)	폐경의 토혈(보)
간경의 금혈(보)	간경의 수혈(보)	간경의 목혈(보)	간경의 화혈(보)	간경의 토혈(보)

심의 보방

풍	열	습	조	한
간경의 목혈(보)	간경의 화혈(보)	간경의 토혈(보)	간경의 금혈(보)	간경의 수혈(보)
신경의 수혈(보)	신경의 목혈(보)	신경의 화혈(보)	신경의 토혈(보)	신경의 금혈(보)
폐경의 금혈(사)	폐경의 수혈(사)	폐경의 목혈(사)	폐경의 화혈(사)	폐경의 토혈(사)
간경의 금혈(사)	간경의 수혈(사)	간경의 목혈(사)	간경의 화혈(사)	간경의 토혈(사)

심의 사방

풍	열	습	조	한
심경의 목혈(사)	심경의 화혈(사)	심경의 토혈(사)	심경의 금혈(사)	심경의 수혈(사)
비경의 화혈(사)	비경의 토혈(사)	비경의 금혈(사)	비경의 수혈(사)	비경의 목혈(사)
신경의 금혈(보)	신경의 수혈(보)	신경의 목혈(보)	신경의 화혈(보)	신경의 토혈(보)
심경의 금혈(보)	심경의 수혈(보)	심경의 목혈(보)	심경의 화혈(보)	심경의 토혈(보)

비의 보방

풍	열	습	조	한
비경의 목혈(보)	비경의 화혈(보)	비경의 토혈(보)	비경의 금혈(보)	비경의 수혈(보)
심경의 수혈(보)	심경의 목혈(보)	심경의 화혈(보)	심경의 토혈(보)	심경의 금혈(보)
간경의 금혈(사)	간경의 수혈(사)	간경의 목혈(사)	간경의 화혈(사)	간경의 토혈(사)
비경의 금혈(사)	비경의 수혈(사)	비경의 목혈(사)	비경의 화혈(사)	비경의 토혈(사)

비의 사방

풍	열	습	조	한
비경의 목혈(사)	비경의 화혈(사)	비경의 토혈(사)	비경의 금혈(사)	비경의 수혈(사)
폐경의 화혈(사)	폐경의 토혈(사)	폐경의 금혈(사)	폐경의 수혈(사)	폐경의 목혈(사)
간경의 금혈(보)	간경의 수혈(보)	간경의 목혈(보)	간경의 화혈(보)	간경의 토혈(보)
비경의 금혈(보)	비경의 수혈(보)	비경의 목혈(보)	비경의 화혈(보)	비경의 토혈(보)

폐의 보방

풍	열	습	조	한
폐경의 목혈(보)	폐경의 화혈(보)	폐경의 토혈(보)	폐경의 금혈(보)	폐경의 수혈(보)
비경의 수혈(보)	비경의 목혈(보)	비경의 화혈(보)	비경의 토혈(보)	비경의 금혈(보)
심경의 금혈(사)	심경의 수혈(사)	심경의 목혈(사)	심경의 화혈(사)	심경의 토혈(사)
폐경의 금혈(사)	폐경의 수혈(사)	폐경의 목혈(사)	폐경의 화혈(사)	폐경의 토혈(사)

폐의 사방

풍	열	습	조	한
폐경의 목혈(사)	폐경의 화혈(사)	폐경의 토혈(사)	폐경의 금혈(사)	폐경의 수혈(사)
신경의 화혈(사)	신경의 토혈(사)	신경의 금혈(사)	신경의 수혈(사)	신경의 목혈(사)
심경의 금혈(보)	심경의 수혈(보)	심경의 목혈(보)	심경의 화혈(보)	심경의 토혈(보)
폐경의 금혈(보)	폐경의 수혈(보)	폐경의 목혈(보)	폐경의 화혈(보)	폐경의 토혈(보)

신의 보방

풍	열	습	조	한
신경의 목혈(보)	신경의 화혈(보)	신경의 토혈(보)	신경의 금혈(보)	신경의 수혈(보)
폐경의 수혈(보)	폐경의 목혈(보)	폐경의 화혈(보)	폐경의 토혈(보)	폐경의 금혈(보)
비경의 금혈(사)	비경의 수혈(사)	비경의 목혈(사)	비경의 화혈(사)	비경의 토혈(사)
신경의 금혈(사)	신경의 수혈(사)	신경의 목혈(사)	신경의 화혈(사)	신경의 토혈(사)

신의 사방

풍	열	습	조	한
신경의 목혈(사)	신경의 화혈(사)	신경의 토혈(사)	신경의 금혈(사)	신경의 수혈(사)
간경의 화혈(사)	간경의 토혈(사)	간경의 금혈(사)	간경의 수혈(사)	간경의 목혈(사)
비경의 금혈(보)	비경의 수혈(보)	비경의 목혈(보)	비경의 화혈(보)	비경의 토혈(보)
신경의 금혈(보)	신경의 수혈(보)	신경의 목혈(보)	신경의 화혈(보)	신경의 토혈(보)

간 풍 보 방		간 정 격		간 풍 사 방		간 승 격	
간의 목혈(보)	大敦	간의 수혈(보)	曲泉	간의 목혈(사)	大敦	간의 화혈(사)	行間
신의 수혈(보)	陰谷	신의 수혈(보)	陰谷	심의 화혈(사)	少府	심의 화혈(사)	少府
폐의 금혈(사)	經渠	폐의 금혈(사)	經渠	폐의 금혈(보)	經渠	폐의 금혈(보)	經渠
간의 금혈(사)	中封	간의 금혈(사)	中封	간의 금혈(보)	中封	간의 금혈(보)	中封

심 열 보 방		심 정 격		심 열 사 방		심 승 격	
심의 화혈(보)	少府	심의 목혈(보)	少衝	심의 화혈(사)	少府	심의 토혈(사)	神門
간의 목혈(보)	大敦	간의 목혈(보)	大敦	비의 토혈(사)	太白	비의 토혈(사)	太白
신의 수혈(사)	陰谷	신의 수혈(사)	陰谷	신의 수혈(보)	陰谷	신의 수혈(보)	陰谷
심의 수혈(사)	少海	심의 수혈(사)	少海	심의 수혈(보)	少海	심의 수혈(보)	少海

비 습 보 방		비 정 격		비 습 사 방		비 승 격	
비의 토혈(보)	太白	비의 화혈(보)	大都	비의 토혈(사)	太白	비의 금혈(사)	商丘
심의 화혈(보)	少府	심의 화혈(보)	少府	폐의 금혈(사)	經渠	폐의 금혈(사)	經渠
간의 목혈(사)	大敦	간의 목혈(사)	大敦	간의 목혈(보)	大敦	간의 목혈(보)	大敦
비의 목혈(사)	隱白	비의 목혈(사)	隱白	비의 목혈(보)	隱白	비의 목혈(보)	隱白

폐 조 보 방		폐 정 격		폐 조 사 방		폐 승 격	
폐의 금혈(보)	經渠	폐의 토혈(보)	太淵	폐의 금혈(사)	經渠	폐의 수혈(사)	尺澤
비의 토혈(보)	太白	비의 토혈(보)	太白	신의 수혈(사)	陰谷	신의 수혈(사)	陰谷
심의 화혈(사)	少府	심의 화혈(사)	少府	심의 화혈(보)	少府	심의 화혈(보)	少府
폐의 화혈(사)	魚際	폐의 화혈(사)	魚際	폐의 화혈(보)	魚際	폐의 화혈(보)	魚際

신 한 보 방		신 정 격		신 한 사 방		신 승 격	
신의 수혈(보)	陰谷	신의 금혈(보)	復溜	신의 수혈(사)	陰谷	신의 목혈(사)	湧泉
폐의 금혈(보)	經渠	폐의 금혈(보)	經渠	간의 목혈(사)	大敦	간의 목혈(사)	大敦
비의 토혈(사)	太白	비의 토혈(사)	太白	비의 토혈(보)	太白	비의 토혈(보)	太白
신의 토혈(사)	太谿	신의 토혈(사)	太谿	신의 토혈(보)	太谿	신의 토혈(보)	太谿

간 열 보 방		간 한 격		간 열 사 방		간 열 격	
간의 화혈(보)	行間	간의 화혈(보)	行間	간의 화혈(사)	行間	간의 화혈(사)	行間
신의 목혈(보)	湧泉	심의 화혈(보)	少府	심의 토혈(사)	神門	심의 화혈(사)	少府
폐의 수혈(사)	尺澤	신의 수혈(사)	陰谷	폐의 수혈(보)	尺澤	신의 수혈(보)	陰谷
간의 수혈(사)	曲泉	간의 수혈(사)	曲泉	간의 수혈(보)	曲泉	간의 수혈(보)	曲泉

심 열 보 방		심 한 격		심 열 사 방		심 열 격	
심의 화혈(보)	少府	심의 화혈(보)	少府	심의 화혈(사)	少府	심의 화혈(사)	少府
간의 목혈(보)	大敦	신의 화혈(보)	然谷	비의 토혈(사)	太白	신의 화혈(사)	然谷
신의 수혈(사)	陰谷	신의 수혈(사)	陰谷	신의 수혈(보)	陰谷	신의 수혈(보)	陰谷
심의 수혈(사)	少海	심의 수혈(사)	少海	심의 수혈(보)	少海	심의 수혈(보)	少海

비 열 보 방		비 한 격		비 열 사 방		비 열 격	
비의 화혈(보)	大都	비의 화혈(보)	大都	비의 화혈(사)	大都	비의 화혈(사)	大都
심의 목혈(보)	少衝	심의 화혈(보)	少府	폐의 토혈(사)	太淵	심의 화혈(사)	少府
간의 수혈(사)	曲泉	신의 수혈(사)	陰谷	간의 수혈(보)	曲泉	신의 수혈(보)	陰谷
비의 수혈(사)	陰陵泉	비의 수혈(사)	陰陵泉	비의 수혈(보)	陰陵泉	비의 수혈(보)	陰陵泉

폐 열 보 방		폐 한 격		폐 열 사 방		폐 열 격	
폐의 화혈(보)	魚際	폐의 화혈(보)	魚際	폐의 화혈(사)	魚際	폐의 화혈(사)	魚際
비의 목혈(보)	隱白	심의 화혈(보)	少府	신의 토혈(사)	太谿	심의 화혈(사)	少府
심의 수혈(사)	少海	신의 수혈(사)	陰谷	심의 수혈(보)	少海	신의 수혈(보)	陰谷
폐의 수혈(사)	尺澤	폐의 수혈(사)	尺澤	폐의 수혈(보)	尺澤	폐의 수혈(보)	尺澤

신 열 보 방		신 한 격		신 열 사 방		신 열 격	
신의 화혈(보)	然谷	신의 화혈(보)	然谷	신의 화혈(사)	然谷	신의 화혈(사)	然谷
폐의 목혈(보)	少商	심의 화혈(보)	少府	간의 토혈(사)	太衝	심의 화혈(사)	少府
토의 수혈(사)	陰陵泉	심의 수혈(사)	少海	비의 수혈(보)	陰陵泉	심의 수혈(보)	少海
신의 수혈(사)	陰谷	신의 수혈(사)	陰谷	신의 수혈(보)	陰谷	신의 수혈(보)	陰谷

폐(대장)의 보방은 폐(대장)을 생해주는 비(위)의 一穴, 폐(대장)을 극하는 심(소장)의 一穴, 自經의 二穴을 취혈하고 사방은 폐(대장)이 생하는 신(방광)의 一穴, 폐(대장)을 극하는 심(소장)의 一穴, 自經의 二穴을 취혈한다.

⑤ 신(방광)의 보사방

신(방광)의 보방은 신(방광)을 생해주는 폐(대장)의 一穴, 신(방광)을 극하는 비(위)의 一穴, 自經의 二穴을 취혈하고 사방은 신(방광)이 생하는 간(담)의 一穴, 신(방광)을 극하는 비(위)의 一穴, 自經의 二穴을 취혈한다.

3. 사암오행침과 육기침법의 비교

위에서 제시한 정승격과 본경의 해당 오행육기의 보사방과 한열격과 한열보사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 정승격과 해당 오행육기의 보사방 비교

정승격과 해당 오행육기의 보사방을 비교하면 他

經의 취혈은 정격과 보방, 승격과 사방이 같으나 自經의 취혈에서 상극관계의 취혈은 같지만 상생관계의 취혈은 다르다. 즉 정격에서는 自經에서 母穴을 승격에서 子穴을 취하나 육기보사방에서는 自穴을 취한다.

2) 한열격과 열보사방과의 비교

한열격과 열보사방은 自經에서의 水火穴취혈은 같지만 他經에서의 취혈은 차이가 있다. 한열보사방은 다른 육기처방과 같이 취혈하는데 반해 한열격은 他經의 경우 한격은 심의 화혈을 보하고 신의 수혈을 사하며, 열격은 심의 화혈을 사하고 신의 수혈을 보한다.

Ⅲ. 고 찰

침구요법은 음양오행설, 경락학설, 장상학설 등 동

양의학의 기초이론을 근거로 하여 체표상의 일정한 부위에 각종 침과 조작방법을 운용하여 물리적 자극을 주어 생체에 반응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질병을 예방, 완화, 치료하는 동양의학 의료기술의 한 분야이다¹⁾.

오행침법은 오행에서 상생관계와賊邪관계를 肘膝 관절이하여 분포한 십이경의 오행속성과 결합할 때 선택되는 혈을 刺鍼하여 경락간 기혈의 허실과 성쇠를 조정하여 음양평형을 이루는 침법으로서¹⁾,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중기에 생존했던 사암도인이 음양 오행의 상생·상극원리에 입각하여 장부의 허실에 따른 침구보사법을 상생관계 뿐만 아니라 상극관계까지 결합시키고, 여기에다 自經과 他經보사법을 결부시켜 사암오행침법을 창안하였다²⁾.

사암오행침의 취혈원칙은 靈樞 經脈篇의 '盛則瀉之, 虛則補之'에서 유래되어 靈樞의 迎隨補瀉를 통해 취혈의 원칙으로 발전되어 秦越人の 難經에서 정립되기 시작한다.

難經에 이르러 五十難에서 오행의 병리상태를 상생, 상극의 부조로 보고 六十九難의 虛則補其母 實則瀉其子의 원칙과 六十四難의 오행배속된 五俞穴을 치료혈로 사용하여 七十九難에서 心病을 예로들어 經絡의 自經補瀉法으로 발전되었다. 이에 明시대에 高武가 針灸聚英에서 十二經絡의 始動病, 所生病과 함께 각경락의 自經보사법을 유주시간과 연관시켜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명대에 張世賢은 校正圖註難經에서 自經보사법을 他經보사법으로 확대했으며 이조 선조시대에 이르러 사암도인이 오행의 상생관계를 통한 自經과 他經보사법에 七十五難의 상극관계를 결합하여 自他經에서 補瀉穴을 취하는 사암음양오행침법이 완성되었다³⁾.

사암오행침법은 '虛者補其母, 實者瀉其子'의 원칙에 다시 '抑其官, 補其讐'의 응용으로 시술하는 침법으로 허실보사법인 정승격과 한열보사법인 한열격의 네가지 처방이 있는데 총 43장, 236개의 변증시차

조문으로 구성된 사암오행침법에서 정승격, 한열격의 正形으로 구성된 조문은 123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難經 七十五難의 '瀉南補北論'에 근거한 A變形, 難經 七十三難의 井穴을 사해야 할 때 榮穴을 대신 사하고 井穴을 보해야 할 때 合穴을 대신 보하는 이론에 근거한 B變形, 병증의 상황에 따라 B變形을 확대하여 自經내에서 혈위를 이동한 B-1變形, 병증의 상황에 따라 他經絡 우수혈 사이에서 혈위를 이동한 C變形과 正形, 變形과 무관한 경험방으로 구성되어 있다⁶⁾.

사암오행침은 취혈에 있어서 '虛者補其母, 實者瀉其子'의 원칙에 따라 정승격의 경우 自經에서 정격의 경우 오행상 自穴을 보하지 않고 母穴을 보하고 승격의 경우 自穴을 사하지 않고 子穴을 사하며 各經의 모든 병증을 하나의 기운의 보사를 통해 치료한다. 그러나 肝虛證은 木經(肝經)을 직접 보하고, 肝實證은 木經(肝經)의 木(井)穴을 직접 사한 것처럼 自經의 自穴을 직접 보사한 경우도 있다⁶⁾.

이러한 사암오행침의 취혈원칙에 따른 처방에 저자는 두가지 의문을 갖게 되었다.

첫째, 사암오행침법은 靈樞 經脈篇⁷⁾의 '盛則瀉之, 虛則補之'에서 유래된 것으로 난경에서는 허실의 병리상태를 오행의 상생, 상극관계의 부조화인 五十難⁴⁾의 五邪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치료에 있어서 육십구난의 '虛者補其母, 實者瀉其子'의 원칙으로 허증일 때는 自經의 母穴을 실증일 때는 自經의 子穴을 취한다. 靈樞의 盛, 虛에 대해 張⁸⁾은 盛은 태음경은 촌구가 인영보다 3배, 소음경은 촌구가 인영보다 2배, 궤음경은 촌구가 인영보다 1배, 양명경은 인영이 기구보다 3배, 태양경은 인영이 기구보다 2배, 소양경은 인영이 기구보다 1배 大한 것으로 虛는 반대의 경우로 설명하였는데, 난경에서는 허실의 병리상태를 오행의 상생, 상극관계의 부조화인 五十難⁴⁾의 五邪의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凌⁹⁾은 오사에 대해 虛邪는 生我之臟, 實邪는 我生

之臟, 賊邪는 克我之臟, 微邪는 我克之臟, 正邪는 本臟에서 병이 생긴 것으로 파악하여 六十九難의 '虛者補其母, 實者瀉其子'의 원칙으로 허증일 때는 母穴을 보하고 克穴을 사하며, 실증일 때는 子穴을 사하며, 克穴을 보하는 것을 치료원칙으로 하였다.

그렇다면 경락의 병증은 항상 오행의 상생, 상극관계의 부조화에 의해서만 생기고 본장부에서 스스로 병되는 경우(正邪)는 없는 것일까? 또한 치료에 있어서도 약물의 경우는 위열의 경우 위경에서 열을 사하는 석고를 직접적으로 쓰지 대장의 습을 치는 약물을 쓰지 않는데 사암오행침법에서는 직접 위열을 치하는 혈을 취하지 않고 사기자의 원칙에 의해 위의 습을 사하는 혈과 대장의 습을 사하는 혈을 취하는 것일까?

둘째, 사암오행침에서는 삼음삼양과 오행의 배합에 따라 한경락은 하나의 오행에 배속된 氣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경락의 병증은 소속오행의 허실에 의해 생기며 소속오행의 보사를 통해 병증을 치료한다.

간의 경우 췌음경에 배속되어 췌음풍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으며 질병은 風木의 有餘, 不足에 의해 발생되니 風木의 有餘, 不足을 오행의 상생, 상극관계를 통해 조정하여 간의 질병을 치료한다. 그럼 하나의 경락은 오행상의 하나의 오행의 기운만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경락의 모든 병증은 하나의 기운만으로 설명이 가능한 것일까?

십이경락의 오행배합은 인체내에서 십이경락이 오행체계를 이루면서 상생, 상극관계를 통해 인체내의 평형을 유지할 때의 오행배합으로 오행상으로 특징지어지는 경락의 기능에 의한 것이며 경락은 오행상 하나의 기운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췌음간경의 경우 췌음풍목의 특징을 가지며 인체내에서 오행상목의 기능을 하고 있지만 간경이 목기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간경육기의 상호관계에 의해 간경이 췌음풍목의 특징이 나타난다고 생각

한다.

靈樞 經脈篇⁷⁾의 始動病, 所生病, 趙¹⁰⁾의 각 경락의 병증은 하나의 기운에 의한 질병이라기 보다는 경락을 구성하고 있는 육기의 상호관계의 부조화에 의해 생긴다고 볼 수 있다. 간병증은 간경목기의 有餘, 不足에 의해 생기는 것이 아니고 간경육기의 상호관계의 부조화에 의해 생긴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병증자체도 木의 有餘, 不足에 의한 병증이 대부분이겠지만 간경자체의 다른 육기의 부족에 의한 병증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육기침법은 기본적으로 사암오행침법과 같이 五俞穴을 치료혈위로 하고 장부의 허실을 오행의 상생, 상극관계를 이용한 自他經보사를 통해 조정하며 風, 寒, 濕, 燥, 寒의 補瀉方의 열까지 처방으로 구성된다.

각 처방은 네개의 혈위로 구성되며 經의 선택은 해당경의 오행의 상생, 상극관계에 의해 하며(장은 장으로 부는 부로 따른다), 經의 구체적인 혈위는 風(목), 熱(화), 濕(토), 燥(금), 寒(수)의 오행에 따른 상생, 상극에 따른다.

육기침법은 五俞穴을 치료혈위로 自經 二穴, 他經 二穴의 보사를 통한 오행의 상생, 상극관계의 조정으로 각경락의 병증을 치료하는 점에서 사암오행침법과 유사하다. 그러나 앞에서 제기한 두가지 의문점 때문에 사암오행침법과는 다르다.

첫째, 육기침법은 상극관계에 의한 취혈은 사암오행침법과 같지만 상생관계에 의한 취혈은 他經은 같지만 自經은 다르다. 즉 補方에서 自經의 賊性穴과 賊性經의 賊性穴을 사하고 母經의 母穴을 보하는 것은 같지만 自經의 경우 사암오행침법은 母穴을 보하는데 비해 육기침법에서는 自穴을 보한다.

瀉方에서 自經의 賊性穴과 賊性經의 賊性穴을 보하고 子經의 子穴을 사하는 것은 같지만 自經의 경우 사암오행침법은 子穴을 사하는데 비해 육기침법에서는 自穴을 사한다.

사암오행침에서는 병증의 발생이 難經 五十難⁴⁾의 五邪중 虛邪, 實邪, 賊邪, 微邪 즉 오행의 상생, 상극관계의 부조화에 의해 발생된다고 보고 難經 六十九難⁴⁾의 '虛者補其母, 實者瀉其子'의 원리에 의해 허증은 自他經에서 母穴을 보하고 克穴을 사하며, 실증은 子穴을 사하고 克穴을 보한다. 그러나 병증의 발생이 오행의 상생, 상극관계의 부조화 뿐만 아니라 本經자체에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치료에 있어서도 補其母와 瀉其子の 간접적인 방법이 아니라 약물의 경우와 같이 직접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육기침법에서는 보방은 自經의 自穴, 母經의 母穴을 보하고 사방은 自經의 自穴, 子經의 子穴을 사한다. 이러한 육기침법의 처방은 正邪를 포함한 오행상생, 상극관계에 의한 모든 병증에 응용이 가능하고 약물과 같이 병증에 해당된 육기를 바로 보하고 사하므로 사암오행침법에 비해 치료가 직접적이다.

예를 들어 肝經의 경우 정격은 陰谷, 曲泉을 보하고 經渠, 中封을 사하며, 승격은 經渠, 中封을 보하고 少府, 行間을 사하는데 비해 肝風補方은 大敦, 陰谷을 보하고 經渠, 中封을 사하며, 肝風瀉方은 經渠, 中封을 보하고 大敦, 少府를 사하므로 간자체의 風氣에 의한 질병에 직접적으로 風氣를 보하고 사할 수 있다.

둘째, 사암오행침법은 三陰三陽과 六氣를 결합하여 각경락이 하나의 기운을 가지고 있으며 이 기운을 조정하여 장부의 허실을 조정하므로 한경락에는 그 기운의 허증, 실증, 그리고 열증, 한증이 존재하며 이의 치료에 정격, 승격, 한격, 열격의 네개의 처방이 있다. 반면에 六氣鍼法에서는 십이경락의 오행배합은 오행상으로 특징지어지는 경락의 기능에 의한 것이며 경락은 오행상 하나의 기운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경락육기의 상호작용에 의해 경락의 오행적 특징이 발현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경락의 병증은 경락육기의 상생, 상극관계의 부조화에 의해 발생하므로 경락육기의 상생, 상극관계의 조정을 통해 병증

을 치료한다.

예를 들어 오행상 목인 간경의 작용은 간경육기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현된 것이며 간목의 有餘, 不足은 간경육기의 상생, 상극관계의 부조화에 의해 발생한 것이므로 이의 조정은 간경육기의 상생, 상극관계의 조정을 통해 가능하다고 본다.

장부 중 心包와 三焦는 오행상 화를 나타내며 無形이면서 無根의 相火가 모든 경락에 流行하므로¹¹⁾ 육기침법에서는 心包와 三焦를 제외시킨 五臟五腑에 육기중 오행의 작용이 자연계에 나타나는 晝를 제외 한 風, 熱, 濕, 燥, 寒을 오행에 배합시켜서 한경락은 風, 熱, 濕, 燥, 寒의 補瀉方의 열가지 처방으로 구성된다. 각 처방은 네개의 혈위로 구성되며 經의 선택은 해당경의 오행의 상생, 상극관계에 의해 하며(臟은 臟으로 腑는 腑로 따른다), 經의 구체적인 혈위는 風(목), 熱(화), 濕(토), 燥(금), 寒(수)의 오행의 상생, 상극에 따른다.

예를 들어 간의 補方은 간경에서 二穴을 選穴하고 간을 생하는 신경에서 一穴을, 간을 극하는 폐경에서 一穴을 選穴하며, 간의 瀉方은 간경에서 二穴을 選穴하고 간이 생하는 심경에서 一穴을, 간을 극하는 폐경에서 一穴을 選穴한다. 肝風補方의 경우 간경의 목혈인 大敦을 보하고 금혈인 中封을 사하며 신경의 수혈인 陰谷을 보하고 폐경의 금혈인 經渠를 사한다. 肝風瀉方의 경우 간경의 목혈인 大敦을 사하고 금혈인 中封을 보하며 심경의 화혈인 少府를 사하고 폐경의 금혈인 經渠를 보한다.

사암오행침에서는 정격, 승격 외에 한격과 열격이 있는데 모든 경락이 自經의 水火穴과 心經(小腸經)의 火穴, 腎經(膀胱經)의 水穴을 補瀉한다. 반면에 육기침법의 한열보사방에서는 他經의 경우 심경과 신경에 구애되지 않고 사용한다. 예를 들어 간한격은 간의 화혈인 行間을 보하고 수혈인 曲泉을 사하며 심경의 화혈인 少府를 보하고 신경의 수혈인 陰谷을 사한다. 간열격은 간의 수혈인 曲泉을 보하고 화혈인

行間을 사하며 신경의 수혈인 陰谷을 보하고 심경의 화혈인 少府를 사한다. 반면에 肝熱補方은 간경의 火穴인 行間을 보하고 水穴인 曲泉을 사하며 신경의 木穴인 湧泉을 보하고 폐경의 水穴인 尺澤을 사한다. 肝熱瀉方은 간경의 火穴인 行間을 사하고 水穴인 曲泉을 보하며 심경의 土穴인 神門을 사하고 폐경의 水穴인 尺澤을 보한다. 사암오행침법의 한열격과 육기침법의 한열보사방의 차이는 한열격은 경락의 한열증을 치료하기위해 화경인 심(소장)경의 화혈과 수경인 신(방광)경의 수혈을 이용하는데 비해 한열보사방은 경락안의 수기와 화기를 보사하게 된다.

육기침법은 사암오행침법과 같이 五俞穴을 치료혈위로 하고 장부의 허실을 오행의 상생, 상극관계를 이용한 自他經보사를 통해 조정하는데 사암오행침법과 달리 상생관계에 의한 自經취혈시에 自經의 母穴을 보하거나 子穴을 사하지 않고 自經의 自穴을 보하거나 사하며 경락안 風, 熱, 濕, 燥, 寒 五氣의 조정을 통해 장부의 병증을 치료한다. 사암오행침법이 정승격, 한열격의 네개 처방으로 구성되는데 비해 육기침법은 風, 熱, 濕, 燥, 寒의 보사방의 열개처방으로 구성된다. 열개처방중 간(담)풍보사방, 심(소장)열보사방, 비(위)습보사방, 폐(대장)조보사방, 신(방광)한보사방은 사암오행침법의 정승격과 유사한 형태를 띠며 실제 활용빈도가 높다. 왜냐하면 목에 해당되는 간은 인체내에서 목의 기능을 하며 목의 有餘, 不足에 의한 병증이 주로 나타나므로 경락안 육기 중에서도 풍목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간의 병증이 모두 간경목기에 의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간경육기의 상호작용에 의해 나타나므로 간의 다른 처방이 필요하다. 또한 自經취혈시 母穴이나 子穴을 취하지 않고 自穴을 바로 취혈하면서 他經에서는 母, 子穴을 취혈해서 치료가 좀더 직접적이고 만전을 기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와같이 이론상 사암오행침법과 유사하면서도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육기침법은 앞으로 임상고찰을 통해 사암오행침법과 육기침법의 임

상적인 비교 연구와 보완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IV. 결 론

사암오행침법과 육기침법을 비교 연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육기침법은 사암오행침법과 같이 五俞穴을 치료혈위로 하고 장부의 허실을 오행의 상생, 상극관계를 이용한 自他經보사를 통해 조정한다.
2. 육기침법은 사암오행침법과 달리 상생관계에 의한 自經취혈시에 自經의 母穴을 보하거나 子穴을 사하지 않고 自經의 自穴을 보하거나 사하며 경락안 風, 熱, 濕, 燥, 寒 五氣의 조정을 통해 장부의 병증을 치료한다.
3. 육기침법은 사암오행침법이 정승격, 한열격의 네개 처방으로 구성되는데 비해 風, 熱, 濕, 燥, 寒의 보사방의 열개 처방으로 구성된다.
4. 정승격과 해당 오행육기의 보사방을 비교하면 他經의 취혈은 정격과 보방, 승격과 사방이 같으나 自經의 취혈에서 상극관계의 취혈은 같지만 상생관계의 취혈은 다르다. 즉 정격에서는 自經에서 母穴을 승격에서 子穴을 취하나 육기보사방에서는 自穴을 취한다.
5. 한열격과 열보사방은 自經에서의 水火穴취혈은 같지만 他經에서의 취혈은 차이가 있다. 한열보사방은 다른 육기처방과 같이 취혈하는데 반해 한열격은 他經의 경우 한격은 심의 화혈을 보하고 신의 수혈을 사하며, 열격은 심의 화혈을 사하고 신의 수혈을 보한다.

V. 참고문헌

1. 전국한과의과대학 침구경혈학교실 編著. 침구학 (下). 서울 : 집문당. 1994 : 1129-1136.
2. 김달호, 김중한. 사암침법의 저작시기 및 형성 배경에 관한 연구. 대한원전의사학회지. 1993 ; vol.7 : 113-159.
3. 정인기, 강성길, 김창환. 五俞穴을 이용한 鍼法の 比較 考察. 大韓針灸學會誌. 2001 ; 18(2) : 186-199.
4. 李嗣. 黃帝八十一難經算圖句解.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97 : 199-201, 258-259, 267-270.
5. 신동훈, 김재홍, 조명래. 오행침법의 정립과정에 대한 사적연구. 대한침구학회지. 2002 ; 19 (4) : 124-131.
6. 김달호, 김중한. 사암침법의 변형에 관한 연구. 한의학회지. 1996 ; vol. 2 : 337-380.
7. 傳統文化研究所. 黃帝內經靈樞. 서울 : 成輔社. 1995 : 129-147.
8. 張隱庵, 馬元臺. 黃帝內經素問靈樞合編. 台北 : 台聯國風出版社. 1986 : 74-92.
9. 凌耀星. 難經校注. 북경 : 인민위생출판사. 1991 : 91.
10. 조세형. 사암침법 체계적 연구. 서울 : 성보사. 1987.
11. 이천. 의학입문. 서울 : 대성문화사. 1996 : 208.